팬데믹과 사회적 가치

한국언론정보학회 연속 포럼

2021. 10. 29. (16:00-18:00)

집에서 예술하기: 팬데믹 이후 일상 예술의 실천과 문화적 의미

[발표] 강보라 (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)

[토론] 박성우 (우송대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) 방희경 (서강대 국제한국학선도센터)

[진행] 채석진 (시청자미디어재단)

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예술 실천은 코로나 이전과 동일한 형태와 의미를 유지하고 있을까? 아니면 달라졌을까? 마지막 포럼에서는 집-공간을 중심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상 예술의 반경과 그것의 실천적·문화적 의미를 성찰하고자 한다. 발표자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집-공간의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지적하며, 이를 통해 관객-예술가-미술관이 예술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발생한 변화양상을 살펴본다. 한국 국립현대미술관(MMCA)이 마닐라 현대미술디자인미술관(MCAD), 치앙마이 마이암현대미술관(MAIIAM), 홍콩 서구룡지구 M+미술관과 협력 하에 구축한 구독형 아트 스트리밍 플랫폼 '원치 앤 칠(watch and chill)' 등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예술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집의 가능성을 재고하고자 한다.

○ 참여 방식: 비대면 온라인 포럼https://zoom.us/j/4243195277

(행사 진행 후 한국언론정보학회 유튜브 채널(https://c11.kr/lied)에 업로드 할 예정)

○ 문의: 채석진 연구이사(stonyjin@gmail.com) 학회사무국(02-392-4426, kacis@kacis.or.kr)